

프로폴리스의 위력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다스린다-
(위염, 암,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생리통, 간경화등)

두리원 대표 김 해 용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1. 프로폴리스는 어떤 것인가?

프로폴리스는 책 내용보다 더 좋다. 관광 안내도 보고 그곳을 찾아갔을 때 안내도 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곳은 거의 없을 정도다. 이것은 관광지역만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선전되고 있는 모든 상품이 그러하다.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백화점 상품에서도 속고 있지만, 읽고 있는 책 역시 마찬가지다. 성인병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 책 한 권이면 모든 성인병은 다 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것은 암에 관해서 책을 쓴 의학자가 암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하고, 간에 관해 학위까지 받은 간 전문의가 간암으로 죽는 예도 있다.

「위장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책을 쓰셨던 김 00박사가 위장계통의 질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이 그 계통에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이 아니고 편저의 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필자는 신비, 기적이라는 책을 접했을 때 제일먼저 생각되는 것이 과대 포장된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그 계통에서 밥을 먹은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적어도 그 계통의 전문서적 20권 이상 읽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몇 년 습득한 지식을 갖고 신비나 기적이니 하는 용어는 함부로 붙일 수 없다. 「건강만세」에 “봉산물의 신비”를 쓰고 있는 필자는 봉산물을 30년간 다루었던 사람이고, 꽃가루는 25년간을 접하면서 연구하였기 때문에 꽃가루 맛만 보아도 무슨 나무에서 생산된 꽃가루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어떤 꽃가루는 어떤 질환에 더 좋다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꽃가루는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 틀림없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꽃가루에서 그만한 위력이 있는 것은 식물의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생식세포라는 것은 즉 생명의 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에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러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 쌀눈이 쌀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2%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쌀눈은 쌀의 영양소(미량 영양소)를 65%나 차지하고 있다.

토양이나 공해의 오염이 없는 곳에서 생산한 꽃가루는 쌀눈의 효과보다 몇 배나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봉산물 중에서는 꽃가루나 로얄제리 외에 주목받는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프로폴리스가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앞으로 수 년안에 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효력이 뛰어나고 부작용이 극소한 물질이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국내에서 특수인에게 알려진지도 벌써 10년이 경과하였고, 프로폴리스 전문가에게 어떤 질환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립되어 있다. 일본 프로폴리스 주식회사 다카시마 사장에 의하면 축농증은 3~6개월이면 낫고, 소화천식에는 100%의 효과가 있고, 암에도 80%의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다소 과장된 글이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12년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도 과장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성 위염도 2~3개월이면 낫게 되고, 잘 낫지 않는 궤양도 4~5 개월이면 재발 없이 완치가 가능하다. 비염이나 신경염에도 잘 낫을 뿐 아니라 여자들의 생리통도 2개월이면 없어진다. 신비, 기적이라는 물질도 실지 사용하여 보면 과장된 것이 대다수이지만 프로폴리스만은 책 내용보다 더 좋다는 여겨지는 것은 이 프로폴리스 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2. 프로폴리스의 역사

성경에 있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여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물로 인간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비말을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미리 알려 주시면 길이 136.8m, 너비 22.8m, 높이 13.7m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신다 이 방주의 적재 용량을 계산하면 32,800톤이나 된다. 나무의 재료는 잣나무는 소나무로 사용하고 안팎은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였다.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하지만, 나무의질이 단단하고 내구력이 뛰어난 나무다. 역청은 송진과 수지로 만들어진 콜타르와 비슷한 것이다. 프로폴리스의 원료가 되는 수지를 모아 방주에도 사용되었지만, 모세를 갈

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낼 때도 수지의 원액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였다. 이상은 필자가 성서에서 찾아 본 것이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이라를 만들 때도 수지를 사용하였다는 문헌이 나오고 있다. 프로폴리스라는 말은 그리스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Pro)를 그리스어에서「앞」을 뜻하고 폴리스(Polis)는「동리 또는 마을」을 뜻한다. 두 어원을 합하면「마을의 앞」,「별문앞」이 된다. 넓게 해석하면 앞에서 마을의 안전과 질병을 막아 준다는 뜻도 된다.

그리스 출신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의 저서「동물지」에 나무의 진액(樹液)에 대해서는 피부질환과 절상, 감염증에 치료약이라고 한다. 서력 기원 초기에 로마의 저술가 폴리니우스(Polinus A.D 23~79)가 쓴 그의 저서「박물지」에 진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두었다.

진액은 체내에 들어간 가시나 나쁜 것을 빼낼 수 있고, 피부의 부기나 경화된 부위를 부드럽게 하여준다. 신경의 아픔을 진정시켜 주고, 진물러진 상처나 종기를 낫게 하고, 고치기 어려운 병들을 치료해 준다고 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나무의 진액에 대해 너무나 정확한 약리작용을 지적해 두었다.

11세기 때 이란의 유명한 철학자 아비센나는 “나무의 진액은 화살이나 가시를 뺀 자리에 발라 주면 덧나지 않고 통증도 진정된다.”고 했다. 남미 페루를 지배하였던 잉카족(1533년 스페인에 정복)들은 전염되는 열병이나 해열제로 사용하였다. 12세기 때부터 그루지야(Gruzija) 공화국에서는 여러가지 치료약의 조제용으로 이용하였다. 진액이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남아프리카에서 영국과 보아인이 싸운 보아전쟁(1899~1902)때다. 양쪽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다. 이때 나무의 진액을 연고제로 만들어 많은 환자들을 구해냈다. 합성의약품인 아스피린(Aspiin)이 나설파다이진(Sulfadiazine)같은 합성의약품들이 개발되자 자연물질에 대한 개발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민간요법으로 이용되던 자연물질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야 여러 나라에서 급격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치병들이 너무 많아지자 일부 서양의학자들 가운데서도 “자연에서 찾아보자”고 외치는 학자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여기에 대한 연구

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송진이나 옻나무진도 프로폴리스의 원료물질이다. 우리조상들은 이 진액물질을 부스럼, 악창, 위궤양, 기관지염, 폐농양 등 다양한 질병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프로폴리스에 대해서는 왜 몰랐을까? 프로폴리스는 개량된 벌통 안에서만 생산되는 나무의 진액 물질이다. 여기에다 벌의 타액과 밀랍을 첨가시켜 벌들이 사용하기 좋게 만든 물질이 프로폴리스이다.

우리 나라에서 키운 벌은 양봉과 같이 굵은 벌이 아니고 양벌 보다 작은 벌이다. 양벌과 싸움을 했을 때 100이면 100, 모두가 양벌에게 지는 것이 토종벌이다. 그렇다 해서 수밀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도리어 양벌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꿀(화밀)은 더 많이 모으고 있다. 그러나 나무의 진액을 모으는데는 양벌이 더 많이 한다. 토종벌은 모은다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이다.

그 이유는 체력에 비해 채취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큼만 채취한다. 진액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는 입턱으로 뜯어낸다. 이때 뜯는 힘은 큰 옛 덩어리를 입으로 뜯어 먹는 것과는 같은 힘이 들 정도다. 그렇게 힘들게 뜯어낸 진액을 발에 감아 가지고 오는데 몸에 비해하면 그 양은 너무 작다. 프로폴리스가 많이 들어 있는 곳이 야생벌집이다. 큰 집을 짓고 사는 호봉들이 밀랍만 갖고 지었을 때는 벌집이 약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를 섞어 가면서 벌집을 만든다. 양벌집을 구해 기관지나, 위장병에 삶아 먹으면 효과가 있는 것도 결과는 프로폴리스에서 얻어진 효과다. 삶아 먹는 것보다 야생벌집은 가루내어 먹으면 더 좋다고 하는 것도, 프로폴리스를 끓였을 때는 본연의 효과에서 20%정도 밖에 얻어 낼 수 없다.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의학자나 학자가 국내에 없음을 필자는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부산보건의신문」에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수심회 연재하는 가운데 하루는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려는 의학자나 학자가 있으면, 필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고, 필요한 프로폴리스도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는 글을 쓴 바 있었다. 찾아 온 사람들은 의사나 학자가 아니고 병원에 근무하는 병리사가 자신의 질병에 시험적으로 써보겠다면서 2개월분을 거저 얻어간 것이 고작이었다.